

# 治産歌 研究

延海辰\*

## 目次

- I. 머리말
- II. 作者 및 製作年代
- III. 作品考
  - 1. 歌辭紹介 및 註釋
  - 2. 分段과 內容
  - 3. 形式
- IV. 맺음말
- \* 治産歌 原本

## I. 머리말

歌辭는 自然·忠孝·歎老·시집살이·想思·勸農 등을 주제로 연속체로 이루어진 조선조 대표적인 문학양식이다.<sup>1)</sup> 3.4조 내지 4.4조를 그 시상에 따라 제한없이 연속하다가 결사 형식에서 양반가사는 시조의 종장처럼 3.5.4.3

---

\* 忠北大學校 講師.

1) 歌辭의 概念 規定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236, 乙酉文化社, 1954.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299

具滋均, 「國文學論叢」 P.302, 博英社, 1966.

金起東, 「國文學概論」 P.135, 精研社, 1969.

金東旭, 「國文學概說」 P.74, 民衆書館, 1974.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P.32. 螢雪出版社, 1991.

으로 끝맺고, 평민가사와 내방가사는 대체로 4.4.4.4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律文과 散文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주제와 함께 양반에서 평민까지 폭넓게 애용한 고유문학이다. 대체로 고전문학은 작가와 독자층에 따라 양반문학과 평민문학으로 분류하는 바, 가사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으로 시조와 함께 모든 사람이 즐긴 민족문학으로 성장했다.

가사는 고려 말엽 나옹화상의 西往歌가 지어진 이후 오래 동안 침체기에 있다가 조선조 성종에 이르러 하나의 문학 장르로 정착하였다. 가사의 발달 단계를 보면 대체로 胎動期·隆盛期·沈滯期·普及期·衰退期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고려 말엽에 태동한 가사가 융성기에 이른 것은 임진왜란 前後이다. 정철과 박인로 등이 배출된 이 시기는 양반가사가 주종을 이루면서 형식상 정격가사, 내용상 서정가사가 중심이다. 그 후 임진왜란을 통한 평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의식, 그리고 위축된 양반계층의 활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민가사와 내방가사가 활발히 창작되었다. 양반과 선비들이 관념적인 세계나 도덕률에 얽매인 啓導 指向의 내용에 치우쳤을 때, 평민은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지혜를 짜내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살아있는 삶을 소재로 선택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녀자에 의해 창작된 內房歌辭일 뿐이다. 宣祖 때 허난설헌이 규방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양반가사의 형식을 차용하여 지어진 규원가로부터 시작된 내방가사는 영남지방의 부녀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러나 양반가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축적을 이루었지만, 내방가사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散文的인 內容을 律文으로 表現한 文學으로 朝鮮朝 후기에 女性들이 積極的으로 참여했던 장르가 內房歌辭다. 時調에도 몇 사람의 女性作品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대부분 遊樂에 종사하고 있던 教坊의 妓女들이요, 閨中의 여성들은 시조 및 여타의 문학 장르에는 教養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壬辰倭亂 이후 사회적 인식의 變化로 가사문학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賦與되어, 특히 嶺南地方과 湖南地方에서 內房歌辭가 성행하였다. 그래서 後期歌辭에는 여성작품이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朝鮮 末葉에 이르러서는 가사는 여성들의 專有物이 되다시피 하였다.

2) 歌辭의 시대구분에 대한 기준점 제시는 다음과 같다.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P.50.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0, P.11.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大洋出版社, 1956, P.309.

趙潤濟, 「韓國文化史」, 探求堂, 1968, P.107.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74, P.7.

李東英, 「歌辭文學論攷」, 螢雪出版社, 1977, P.157.

鄭炳昱, 「韓國古典詩歌論」, 新丘文化社, 1977, P.200.

요컨대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오직 가사를 통하여 그들의 倫理的 생활을 강조하고, 風流生活을 노래하고, 閨中의 怨恨을 영탄함으로써 하나의 道樂으로 삼았다. 특히 수많은 전란과 피폐한 삶을 통해 나타난 양반의 무능과, 소외된 여성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의 挑戰意識과 지배층에 대한 批判이 꾸밈없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방가사는 閨怨歌·宣飯歌·鳳仙花歌·老處女歌·庸婦歌·想思回答曲·反花煎歌·閨中行實歌·怨恨歌·誠女歌·恨別曲·달거리·良辰和答歌·괴똥어미전·花鳥歌·春遊歌二 등이 있다. 그러나 발굴된 3000여수 작품과, 작품 형성시기나 여성들의 참여 정도를 볼 때 아직도 많은 내방가사가 死藏되어 있으며 연구 또한 未盡한 편이다.

本考에서 다룬 治産歌는 여타의 內房歌辭가 지니고 있는 生活의 哀歡이나 男女間의 사랑, 혹은 자연의 風光을 읊조리는 敍景的인 면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 治産歌는 事物을 客觀的 敍事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古事成語나 漢文투의 문자를 사용하여 양반가사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품위와 교양, 지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治産歌’의 작가가 지은 ‘물네별곡’에 나타난 길쌈의 과정을 보면 삼농사·삼삼기·물레질·베짜기의 단계를 거친다. 그 중에서도 婦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정은 물레질과 베짜기이며 베틀 노래가 중심을 이룬다. 물네별곡은 물레의 구조와 물레과정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내방가사의 대부분이 영·호남을 중심으로 창작되었는데 이 노래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治産歌와 물네별곡은 충청권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本論考에서는 治産歌의 內容, 形式, 主題意識, 註釋, 製作年代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II. 作者 및 製作年代

作品 末尾에 “정유년(丁酉年) 지월(至月) 염간(念間)<sup>3)</sup>의 죽산(竹山) 안씨(安氏) 등서(登書)<sup>4)</sup> 연령(年齡) 육십(六十) 오세(五歲) 노필(老筆) 비점비획(非點非劃)이니 보난재 놀너 살피라. 필적(筆蹟)은 좃치 못하나 여자의 후원(後援)이니 모범(模範)이 될 듯하여 여기 기록하노라.”라는 기록이 있어 12년 후에 발표된 물네별곡의 작가와 같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네별곡의 末尾에 “이 물

3) 동짓달 스무날 경을 가리킨다.

4) 등서(騰書)의 誤字로 원본을 베꼈음을 의미한다.

네별곡은 문장(文章)이 지은 곡(曲)이라 허술이 말고 유전해 보라”라는 간곡한 당부와 함께 “죽산(竹山) 안씨(安氏) 칠십 칠세 구월의 등서 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어 물네별곡의 作家가 다른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歌辭를 처음 전해 준 김 해숙씨에 의하면 曾祖 할머니의 文章力이 뛰어나, 며느리로서 함께 생활했던 안 명주가 시어머니의 읊조림을 기록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作品末尾의 문장가는 안 명주의 시어머니<sup>5)</sup>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治産歌는 죽산 안씨 스스로 시어머니의 노래임을 밝히고 있어 작가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 중의 하나다. 그러나 내용 전개와 사용된 언어, 그리고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것을 볼 때 안 명주의 의도와 표현이 많이 첨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大部分의 後期 내방가사가 오랜 동안 庶民들의 입을 통해 이루어진 續層文學的인 요소가 짙은데 비하여 한 여성의 創作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竹山 安氏는 본명이 安 明珠<sup>6)</sup>로 그의 나이 65세, 즉 1957년에 本歌辭를 기록했다. 따라서 治産歌의 創作은 安 明珠의 出嫁시기와 현대적 언어 사용을 감안할 때 1945年을 前後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9世紀 後半期는 국가적 차원의 改革運動이었던 甲午更張과 더불어 복잡다단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不安定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不確實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러한 近代에서 現代로 넘어오는 過渡期적인 때에 전라남도 谷城에서 태어난 그가 忠州로 出嫁했던 상황은 體制 및 價値觀의 변화, 身分變動, 兩班社會의 崩壞 등 閨房女性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殞命하기 몇 해 전에 그가 가슴속에 품어왔던 시어머니의 삶의 堆積이 「치산가」 「물네별곡」을 위시한 몇 편의 작품에 眞率하게 표현되어 있다.

본 가사는 教育的 目的이 다분하며, 문장 構成力, 적절한 古事成語의 사용, 漢文套의 문장, 풍부한 語彙力으로 보아 작가는 教養있는 兩班家의 後孫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사는 作家와 製作年代가 분명하며, 가사의 素材 및 內容이 독특하여 風俗史的인 의미의 고찰과 함께 시기적으로 후기가사의 마지막 작품으로 推定해 볼 수 있어 文學史的인 의미 또한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李官岩(1874-1944)으로 71세로 생을 마감했다. 丹陽 영춘에서 태어나 충주로 出嫁하여 생활했으며 그의 삶과 정신을 고스란히 며느리 安明珠에게 남겼다. ‘治産歌’, ‘물네별곡’ 외에 여러 편의 한글 書簡文을 지었다.

6) 安明珠(1892-1970)는 全羅南道 谷城에서 태어나 忠淸北道 忠州로 出嫁하여 구한말의 혼란과 일제 하의 궁핍을 온 몸으로 부딪치면서 근대와 현대의 격변기를 몸소 體得했다.

### Ⅲ. 作品 考

#### 1. 歌辭紹介 및 註釋

第 1 段 :

부모형제	이별하고	그리운집	작별하고
빚이가	넘은 길의	시집문전	당도하니
새방안에	들어가니	다만	빈벽뿐니로다
다쓰러진	삼칸초가	눈압폐	감감하다
이와갓치	신선하나	엇지하리	

第 2 段 :

동네잔치	고사하고	진행일에	주려가니
후형 <sup>7)</sup> 오신	늘근부친	어이업서	하신말삼
잘못히다	내속앗다	인지중지	너을길너
부귀영화	보려쓰니	예다두고	어이가리
이일을	엇지하랴	아반님	걱정말고
마음안정	호소서		

第 3 段

여자의	몸이되면	일단결혼	하엿스니
결혼한	다음에	남편을	쫓침이라
남편을	쫓은날의	빈부를	가리잇가
이층벽돌	양옥집은	친부모예	집이요
다쓰러진	삼칸초옥	구고 <sup>8)</sup> 계신	너집이라
속앗씨도	연분니요	가난함도	팔자로다
출가의외인	싱각말고	안녕이	회정 <sup>9)</sup> 호오

7) 후형 : 위요(圍繞)와 같은 뜻으로 혼인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8) 구고 : 구고(舅姑)로 시부모를 말한다.

9) 회정(懷情) : 마음에 품은 情誼나 愛情.

第 4 段

신형 <sup>10)</sup> 은	삼일만에	전지 <sup>11)</sup> 에	나가보니
한풍이	소실하고	살임사리	살펴보니
잇는것은	한나없고	없는 것	분니로다
금비여	보석반지	전당국 <sup>12)</sup> 의	전당하냐
쌀팔고	반찬사서	부모봉양	하고보니
쇠털갓치	수만은날	살라갈길	막연하다
혼수한 것	만컨만은	글노엇지	당할손가
여섯시나	되은식구	먹기인들	자글소냐
치마끈을	줄라민들	글노엇지	당할소야

第 5 段 :

천황 <sup>13)</sup> 씨	서방님은	글뵈게	무엇알이
연만하신	시부모난	다만	망영 <sup>14)</sup> 썩니로다
양상마진	시누님은	업는무함 <sup>15)</sup>	썩니로다
빈약한	여자일 망정	오장육부 <sup>16)</sup>	업실소야
그러타고	성을니면	그집안니	엇지되랴 <sup>17)</sup>
집안니	잘되기난	화목함이	제일이로다
무죄한	꾸중나면	고기숙여	잠잠하고
철모르는	어린마음	친정싱각	간절하다
연과 <sup>18)</sup> 하신	부모말삼	형여엇지	이즐소야
지닌날	싱각하니	부모님	덕턱으로
오색금의 <sup>19)</sup>	골나입고	세시보름	조은씨의

10) 신형(新行) : 婚行 곧 결혼을 가리킨다.

11) 전지(田地)를 말한다.

12) 전당국(典當局) : 典當舖를 가리킨다.

13) 천황(天皇)을 뜻한다.

14) 망령(妄靈)을 뜻한다.

15) 무함(誣陷)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못된 구렁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다.

16) 오장육부(五臟六腑)를 말한다.

17) 시집살이의 유형에는 남편을 노래한 것, 媿族과의 不和를 노래한 것, 親庭을 노래한 것, 잠을 노래한 것, 生活苦를 노래한 것, 離別을 노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治産歌’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8) 연과(年過) :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의미한다.

19) 오색금의(五色錦衣) : 호화롭고 사치스런 비단 옷을 가리킨다.

여러동우	친히모여	상육 <sup>20)</sup> 도	던저보고
진진별미차답 <sup>21)</sup>	용봉탕 <sup>22)</sup> 도	입맛업서	못먹다가
예법을	조츠라니	출가외인	되엿쓰니
굽주리고	헐벗슨들	어디가서	원정 <sup>23)</sup> 하리
엿식미명 <sup>24)</sup>	넉시비를	가을아서	곱다하며
제씩과	보리죽을	맛조와	감식 <sup>25)</sup> 하며
쓸어진	초가집은	마음에마저	질겨하리
이빠진	푸른사발	눈에차서	곱다하리
구고 <sup>26)</sup> 압폐	웃는낫치	제즐거워	그리할가
한되두되	쫘먹으니	기리한밤	긴긴희의
기갈 <sup>27)</sup> 이	자생호고	한문두문	꾸어쓰니
가난은	일반이라	낙양절 <sup>28)</sup>	금물이라

第 6 段 :

건네마을	김부자은	씨가본디	부잘년가
아리마을	이부자가	씨가본디	부잘년가
나도힘써	버러보면	안이될일	무엇잇쓰라
금석 <sup>29)</sup> 도	쫘게되고	큰강도	막게된다
금석갓치	구든마음	갈스룩	긋어진다
과거의	고성사리	일분인들	이질소냐

第 7 段 :

희망봉을	향하여	어거어차	저어가자
빅설갓튼	힌목화	송이송이	짜니여
구름갓치	피워니여	밤낫업시	자아내여

20) 상육 : 옷놀이를 말한다.

21) 진진별미차답(珍珍別味茶啖)으로 맛있는 음식과 차를 말한다.

22) 용봉탕(龍鳳湯) : 잉어와 닭을 함께 끓인 국이다.

23) 원정(怨情) : 원통한 정을 말한다.

24) 열세무명의 誤記이다. 무명실로 짠 피륙으로 보잘것 없는 옷을 가리킨다.

25) 감식(甘食)을 뜻한다.

26)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곧 媿父母를 말한다.

27) 기갈(飢渴) : 굢주림을 말한다.

28) 낙양절(洛陽節) : 경치 좋고 명승고적이 있는 곳을 말한다.

29) 금석(金石)

올올리	뽀바니여	필필이	나라
유황기 <sup>30)</sup>	큰베틀의	잉이 <sup>31)</sup> 다라	거리눅코
오유월 <sup>32)</sup>	더운날의	땀씨스며	바디치고
엄동설한	추운날	손을불고	북 <sup>33)</sup> 을친다
낮이면	반필이요	밤이면	열자로다
다섯가지	질삼도하고	오식당식 <sup>34)</sup>	실을자사
원앙침	수노키와	관디관의	학노키와
동네사람	관혼상제	못하는일	다히주며

第 8 段

전답어더	농사한다	씨을맛취	씨뿌려서
앤참호괴	풀뽑는다	삼사월	긴긴히에
호미자루	들어보니	손가락	갈키갓고
손톱발톱	찌어진다	온유월 <sup>35)</sup>	폭양에
논가운데	드러서니	숨이막여	답답호고
땀흘너	비가나린다	가을날	찬바람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벗싼콩싼	여나르니
고기인들	견딜소야	사디삭신	육천마디
마디마디	압호로다	그러하나	추수하여
노적가리	싸고보니	깃써마음	절노나며
고된것도	모르겠다	울밧터	밧가의
콩심어	키워니며	비탈밧	보리골에
목화심어	키워니여	오곡빅곡	길너너니
그아니	장할소냐		
그렁저렁	넉나이	오십이라	남편의게
조심함이	화축동방	첫밤이나	일분인들
다를소냐			

30) 유황기 : 柔滑한 기계, 곧 부드럽고 매끈한 베틀을 말한다.

31) 잉애 : 잉아로 베틀의 날실을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줄.

32) 오유월(五六月) : 오뉴월

33) 북은 베틀에 딸린 기구로 씨의 꾸리를 넣고 북바늘로 고정시켜 날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여 씨를 풀어 주어 피륙이 짜지게 하는 베같이 생긴 나무통.

34) 오색당색(五色唐色)으로 색색의 실을 말한다.

35) 오뉴월

第 9 段 :

아가아가	딸의아가	시집사리	조심하여라
여자의	웃뜸헝실	유순함이	제일이라
집안식구	뜻슬맛취	믹사을	공순하라
식성을	마추워서	음식범절	잘혀라
성품니면	우숨웃고	걱정하면	함복 <sup>36)</sup> 하라
비주 <sup>37)</sup> 하고	용열 <sup>38)</sup> 한말	부더부더	듯지말고
용렬 <sup>38)</sup> 하고	누추한말	부더부더	하지말고
금수 <sup>39)</sup> 갓튼	부정헝동	부더부더	하지말라
안희 <sup>40)</sup> 가	현철 <sup>41)</sup> 하면	남편광치	절노나고
집안니	화목하면	가도 <sup>42)</sup> 가	홍성하다
비추 <sup>43)</sup> 하나	투기지심하지	말고 손님갓치	더접하라
압을것고	뒤을것고	조심하여	말하여라
신을끌고	기침하여	문을열고	신성 <sup>44)</sup> 하며
체신범절	진중하고	경히말라	
빈방안에	들려가도	사람잇는것갓치	조심하라
문박계	옛보기와	남의집	전달하기
이웃간의	무르맛침 <sup>45)</sup>	세잔한집	헝실이라
네몸을	네가살피	남이부더	웃게마라
체사음식	차일적의	더리울가	조심하라
남의자식	되여스니	시부모게	효도하라
남의것	사랑이	불효에	죄인니라
부모게	불효함이	천하에	제일이라
제가나은	아들인들	사람독종	엇지하리

36) 함복 : 含憤의 誤記로 분한 마음을 품음을 말한다.

37) 비주 : 裨助의 誤記로 도와움을 의미한다.

38) 용렬(庸劣)로 못생기어 재주가 남만 못하고 어리석음.

39) 금수(禽獸)

40) 안희> 안이> 아녀> 아내

41) 현철(賢哲)

42) 가도(家道)

43) 비추(悲秋)로 쓸쓸하고 구슬픈 가을.

44) 신성(晨省)

45) 무르맛침 : 무릎맞춤의 誤記로 말다툼이나 판가름 등을 할 경우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 제 삼자 앞에서나 말전주한 사람과 맞대어 전에 한 말을 되풀이시켜 따지는 일.

어진여성      본을바다      아모쪼록      조심하라

第 10 段 :

더확까지	마친몸이	못할것이	무엇업서
못된여성	형실보면	망칙하고	괴이하다
문틈으로	옛보난양	비구 <sup>46)</sup> 하여	못보것고
일가간의	이간헝기	화가나서	못보것고
이웃사람	홍보는솔	게웁나서	못보것고
형주치마	불티운양	게렁마저	못보것고
사발더집	깨치은양	데툭마저	못보것고
식전아침	늦잠자기	게울너서	못보것고
비여일코	악담하기	헝고해서	못보것고
반을일코	방짱털기	소름씨치	못보것고
밥하다가	두싼가기	추접헝서	못보것고
굴은사람	홍보은솔	알미위서	못보것고
시부모말쌈	더담한솔	괘쌈헝여	못보것고
남편의말	포악더담	눈꼴사나	못보것다

第 11 段 :

누에쳐서	명주낫코	목화따서	미명 <sup>47)</sup> 나니
집안식구	만타히도	의복걱정	괴이업다
여러 가지	김싱키워	알너이고	새끼치며
산에올나	남무하니	썩기도	넉넉하고
말라쓰니	더욱쫓타	등잔밧테	지붕하여
삭바다	보티쓰니	살임용돈	만껏마은
걱정근심	괴이업다		
살임사리	느러가나	지닌일을	이질소야
지성이면	감천니요	티슬모와	티산니라
푼을모여	양이되고	양을모와	관니된다
뒗들에	밭출사서	보리갈고	밀도갈며

46) 비구 : 鄙陋의 誤記로 고상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말한다.

47) 미명 : 무명

오곡이	풍부하니	가산니	점성이라
압들에	논을사서	나도짓고	남도준다
울을헐고	담을쳐서	집안모양	치장하며
의양것고	기화이여	와가 <sup>48)</sup> 로	고쳐녹고
이층실	응접실을	보기좃케	꾸며놋코
문화주퓌	건설하고	능나금수 <sup>49)</sup>	옷슬지여
철철이	가라입고	육미차반 <sup>50)</sup>	힌쌀밥을
씩씩로	포식하며	시집은제	싱각하니
어언간	십년만에	직산니	수만지라

第 12 段 :

이근에	사은사람	뉘안니	층찬하며
뉘안니	부러할가		
아모리	부귀한들	나혼자	잘살쏘야
굶주리고	못사느니	밥을주어	구제하며
옷시업서	헐벗느니	옷슬주어	구제하고
집이업서	못사느니	집사주어	구제하고
관혼상제	못하나니	돈을주어	구제하고
부모덕에	빚운공부	나혼자	알고보리
글모르난	동니여자	건너방의	모여눅코
한문궁문	가르치며	본디업는	이웃여자
오른말노	지도하여	살임답게	하여준다

第 13 段 :

아들형제	딸한나을	곶게곶게	길너니여
서울디학	마친후의	외국유학	식혀또다
큰아들은	문학박사	자근아들	공학박사
딸은	모범여성	집안광치	절노나며
니외	히로하니	팔자도	거룩하다
딸을길너	출가할 썩	손을잡고	훈게하되

48) 와가(瓦家)

49) 능라금수(綾羅錦繡)

50) 육미차반(肉味茶盤)

아가아가	딸의아아	곶게곶게	길너너서
이제와서	남을주니	우연한	인연으로
비필이	되엿스니	정성과	인정으로
남편디접	극진하라		
세상이	박겨되여	여존남비	주장컨만
여자은	헝헝불함은	이분예	달엿도다
만일	헝실부정하면	한번눈예	나게되면
독수공방	설운한탄	죽어	영이별은
남디도	잇것마은	살라생전	생이별은
싱초목의	불리로다		
죽은사람	싱각하면	꿈예보면	반가우나
산직성	틀이면은	빅연니	원수로다
남남이	서로만나	정을미저	유별한다

第 14 段 :

부정헝동	드러보라		
곡식너여	돈을사고	돈을주어	고기산다
식은밥	기을주고	상한고기	기을준다
밤이면	밤참먹기	낫지면	주점버리 <sup>51)</sup>
바갓사랑	늘근시부	썸예나	싱각하리
세간사리	하는범절	절통 <sup>52)</sup> 하고	이달또다
무당드려	푸닥거리	성주 <sup>53)</sup>	맛기우리
너외금슬	죇케	지성으로	비러주기
포악하라	옷슬주며	양돈주며	섬쌀주며
산에가서	산제호고	절예가서	불공하나
이런사람	기도흔들	조금인들	도와주라
도와주기	고사호고	오히려	죄을준다

51) 주점벌이 : 주전부리의 誤記로 군것질을 의미한다.

52) 절통(切痛)

53) 성주(成造) : 집을 지키는 신령으로 흰 종이를 한 변이 10cm 가량 되게 모지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왕돈 한 푼을 그 속에 넣고, 안방으로 향한 대들보에 붙인 다음 쌀을 뿌려 불게 하여 표상함.

第 15 段 :

아가아가	딸의아가	너도임의	알연니와
세상평판	들었지	간폰은	디학출신
감은놉픈	자손니라		
그여자	출가할 썩	뉘아니	부뤄하리
출가오든	그날보툼	그의헝동	히구하지
이세상	빚운여성	자기썩만	아니것만
천상천하	유아독본	안하에	무인니라
아침저역	화장하기	자기친구	이야기
종일토록	학교이야기	밤식도록	선싱이야기
동부인희서	산보하기	이웃딕과	극장가기
한도빅	이여들고	시장네거리	혀여미며
가축망디	흔들면서	맛난음식	사드리고
살임사리	되것말것	시부모야	엇지되든
집안니야	조킨말건	남편사랑	자식사랑
신학문을	빅와다고	위생관념	극진컨마은
더낫제	오짐요강	방안에	드러눅코
비자루로	오짐요강	가리고	결네쪼각
온방안에	벌려눅코	얼룩덜룩	장판방은
호랑가죽	흡사하다	언제닥슨	마루인지
오동빚치	절노난다		
그조은	유기그릇	시퍼러케	눅이실고
빅옥갓튼	샤기그릇	썩가찌여	시커먹코
찬장구석	골방구석	독기비	살임사리
손님디접	하려하면	요리범츄	먼저찾고
의복을	지으라면	서양제박게	못한다고
요리핑게	저리핑게	한업시	거절한다

第 16 段 :

무식한	자식이라면	못나서	못하련만
공부한	여자로서	못할이리	무엇야
안희가	현철하면	남편니	싱광 <sup>54)</sup> 이요

54) 생광(生光) :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 낮이 남.

안희가	현철하면	온집안니	꽃치로다
학교공부	하엿다고	제가가장	난체히고
세상경험	업시면서	아는체	너무마라
신녀성	하는동작	세상사람	눈놀린
파마머리	좃킨만은	더벅머리	하지말고
불근입술	좃킨만은	빗발갓케	하지말고
힌도백이	좃킨만은	보기실케	들지마라
금시계가	좃타히도	건방지게	차지말고
보석반지	좃킨만은	상श्यक	차지말고
파란신니	좃킨만은	멋좀너무	너지말며
하얀신니	좃킨만은	남이웃게	신지말며
친구간의	편지왕니	부지럽시	하지말고
동창싱이	좃타해도	부지럽시	찾지말고
남녀동권 <sup>55)</sup>	좃킨만은	남의의무	먼저말고
상식 <sup>56)</sup> 잔케	하지말고		
어린자식	귀엽건만	것사랑은	형여말고
남편니	사랑히도	남이알게	하지말고
진정하고	진정하라		

第 17 段 :

세상인심	불짜시면	넋싱각	갓틀소야
까닥잘못	실수하면	남편신분	깍겨진다
남편신분	각길진디	친정부모	망신한다
아가아가	딸의아가	삼종 <sup>57)</sup> 근원	일치말고
칠거지악 <sup>58)</sup>	범치마라		
어미말을	명심하여	주야일시	잊지마라
명년봄	도라오면	너을다시	다녀오마

55) 남녀동권(男女同權)

56) 상식(常識)

57) 삼종(三從) : 三從之德으로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예의범절을 말한다. 어렸을 때는 아버이를 좃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좃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좃으라는 도덕률이다.

58) 칠거지악(七去之惡) : 봉건시대 아내를 내쫓는 일곱 가지 이유로 不順舅姑, 無子, 淫行, 嫉妬, 惡疾, 口舌, 盜竊을 말한다.

네가다시	오는날의	시부모게	사랑받고
남편과	금슬 <sup>59)</sup>	화락하게	산다하면
늘근어미	마음이야	어이아니	조을소야
아가아가	딸의아가	너무설위	하지말고
아무조록	시집사리	조심하여	잘사라라

정유년(丁酉年) 지월(至月) 염간(炎間)<sup>60)</sup>의 죽산(竹山) 안씨(安氏) 등서(登書)<sup>61)</sup> 연령(年齡) 육십(六十) 오세(五歲) 노필(老筆) 비점비획(非點非劃)이니 보난재 늘너 살피라 필적(筆蹟)은 좃치 못하나 여자의 후원(後援)<sup>62)</sup>니 모범(模範)될 듯 하여 여기 기록(紀錄)하노라.

## 2. 分段과 內容

치산가는 243行 472節 943句로 3.4調를 기본 리듬으로 하는 長篇歌辭, 內房歌辭, 開化歌辭다. 한 여성이 겪는 시집살이의 고됨과, 같은 길을 걷는 딸에 대한 당부와 소망이 담겨 있다. 男尊女卑의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과 괴로움을 自歎과 自嘲로 노래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 사회와 딸을 향해 啓導하고 啓蒙하는 교훈적인 면을 담고 있다. 序詞에는 시집가는 정경과 친정 부모의 심경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本詞에는 당사자의 심정과 順命意識, 빈한한 살림살이, 시집살이의 고단함, 당사자의 고통 극복의지, 베짜기와 샅바느질, 소작농의 悲哀와 倫理意識, 친정 부모로서의 당부, 不正한 여성에 의한 他山之石, 근검절약의 생활, 공동체적 삶, 부모로서의 긍지와 자랑, 부정한 행위와 迷信의 盲信, 여성의 오만함과 게으름 비판, 여성교육의 중요성과 輕薄함 叱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結詞 부분은 부모된 입장에서의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방가사는 조선후기 이후 開化期를 거쳐 日帝下에서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곧 時調와 함께 生命力이 장구하고 여성 및 평민층까지, 폭넓은 작가층을 확보한 국민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규방가사 중에서 베틀에 관한 가사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많이 발굴되고 연구되었지만 한 여성의 전 생애와 그의 딸에 교육과 당부가 2대에 걸쳐 섬세하게 묘사된 규방가사는 없었다.

59) 금슬(琴瑟)

60) 丁酉年 至月 炎間 : 1957년 11월 20일.

61) 등서(登書) : 騰書의 誤記로 원본을 보고 썼음을 알 수 있다.

62) 후원(後援) : 뒤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안명주의 시어머니를 말한다.

便宜上 治産歌를 17段落으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내재한 삶의 堆積을 밝히고자 한다.

### 第 1 段 :

序詞部로 한 여성의 새로운 삶, 곧 시집가는 정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부모와 가족을 뒤로 하고 가난한 시집살이의 첫발을 내딛는 어두운 모습에서 당시의 결혼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 풍요로움과 온화한 자취는 보이지 않고 겉옷마저 벗고 온몸을 드러낸 채 차가운 바람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다. 양가 부모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결혼하는 날에야 당사자의 됄됨이를 알게 되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어슴푸레 짐작하는 피동적 삶이다. ‘엇지 하리’라는 표현에 체념적이고 암담한 미래상황을 암시한다.

### 第 2 段 :

친정 아버지의 절망과 한탄이 절절하다. 金枝玉葉으로 키운 딸을 돌이킬 수 없는 가난과 고된 삶의 한복판에 던져 놓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처절하게 표현되었다. 애절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이 도리어 아버지를 위로하며 웃는 쓴웃음에서 은근과 끈기, 가냘픔과 애처로움, 情恨과 諧謔 등 규방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특질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딸의 대화 형식으로 飛躍과 詠歎을 적절하게 섞어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게 한다. 특히 극존칭 ‘하소서’를 씀으로써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 第 3 段 :

三從之道의 자세가 드러난다. 결혼 전에는 부모의 뜻을 따르고 결혼 후에는 지아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順命意識이 뚜렷하다. 남편을 섬기는 일은 지위나 빈부에 있지 않고 무조건적인 일이다. 잘사는 친정을 잊고 초가삼간의 가난을 팔자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이 강하다. 스스로 出嫁外人임을 깨닫고 시집의 안녕을 위해 몸을 던질 각오를 한다. 양옥집과 삼칸초옥, 친부모와 舅姑를 대조적 수법을 사용하여 가난을 강조하고 있다. ‘양옥집’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본 가사의 지어진 연대가 1900년대 이후임을 알 수 있다.

第 4 段 :

신혼초의 빈한한 살림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논밭에는 거두어들일 것 하나 없이 찬바람만 불어 寒氣와 궁핍이 더하고, 집안에는 아무런 세간도 없다. 하루하루를 사는 게 발가벗고 찬바람 맞으며 선 나무처럼 춥고 삭막하다. 결혼 예물을 典當舖에 맡기고 마련한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지만 앞길이 막막하고 암담하다. ‘전당국’은 일제시대의 산물이다. 서민들의 哀歡이 담긴 언어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배고픔이 생활화되어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의 찌든 삶이 서사적으로 나타나 있다. 배고픔을 참기 위해 치마끈을 졸라매는 부분은 조선조 서민들의 질경이 같은 삶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第 5 段 :

시집살이의 고단함이 잘 드러나 있다. 서방님의 무관심, 시부모의 망령, 시누이의 모함을 집안의 화목을 위해 참아낸다. 화목을 위해 병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 눈 먼 삼년을 보내는 봉건시대 여성의 桎梏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과거의 회상으로 돌아가 어릴 적 비단옷에 山海珍味の 음식에도 투정을 부렸던 것을 생각하니 지금의 무명옷과 보리죽이 더욱 초라해진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친정에서 衣食住 걱정 없던 과거와, 굶주림과 헐벗음, 보잘 것 없는 세간의 현재가 교차되면서 시부모 앞에서 덧없이 웃는 얼굴빛이 스스로도 처량하다. 悲哀美의 극치다.

第 6 段 :

옹골지고 당찬 한 여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運命論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나 있다. 富貴功名과 簞瓢陋巷이 처음부터 정해진 바가 아니고 운명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바꿀 수 적극적 挑戰意識이 돋보인다. 오늘은 가난하지만 힘써 일하면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어떤 고난도 그 아픔이 깊어 갈수록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굳어진다는 자세로 한국 여성의 다부진 심성을 읽을 수 있다.

第 7 段 :

하나의 옷감을 얻기까지의 전 과정을 飛躍的으로 묘사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백설 같은 목화를 길러낸다. 그리고 밤낮 없이 물레질을 하여 베를 짚실을 지어낸다. 앞서 발표한 「물레별곡」에서 물레와 베틀에 대한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다. 完成된 물레의 모습을 빼어난 對句와 直俞로 措寫하고 있다. 팔각으로 펼쳐진 물레살을 列과 伍를 맞춘 창에 비유하고 감겨진 실을 거미줄과 땃줄에 견주고 있다. 적절한 古事成語의 引用과 여성으로서의 纖細함과 부드러움이 있는가하면 물레의 힘찬 모습을 適切한 비유와 的確한 언어를 驅使하여 표현했다. 날줄과 씨줄이 힘차고 精緻하게 뻗어 가지런하고, 봉황이 벽오동에 깃드는 우아함과 가로쇠의 힘찬 모습을 조조의 철환이 휘도는 강인함으로 그리고 있다. 날아갈 듯 힘차고 直과 曲, 強과 弱이 교차하듯 만나는 모습이다.

창가에 놓여 있는 물레를 달과 오동나무가 어우러진 듯 우아하고, 가로쇠는 천년 묵은 거북이가 듚직하게 자리한 듯하다. 괴머리는 홀로 외로이 떨어져 먼 곳만을 바라보고, 쌍고동은 숙향이 부모와 이별할 때 받은 옥지환 모습이다. 으스름 달밤에 물레 돌리는 고아한 여성의 자태가 스치는가 하면, 시집살이의 고됨과 외로움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治産歌」에서는 삶의 일부분으로써 베 짜는 장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뉴월의 염천과 동지선달의 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물레와 베틀을 돌리는 힘든 삶이 꾸밈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샅바느질로 삶을 꾸려나가는 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第 8 段 :

소작농의 비애와 논농사와 밭농사 짓는 모습이 계절에 맞게 표현되어 있다. 淸明 穀雨 지나 절기에 맞춰 씨 뿌리고 삼사월에 김을 매니 고운 손은 갈퀴가 되었고 손톱발톱은 다 빠져버렸다. 여름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땀이 흐르고, 가을날은 설 틈도 없이 밭에 심은 콩과 목화를 거두어들인다. 몸은 고되지만 추수하는 기쁨으로 모든 시름을 털어 버리는 부녀자의 근면과 긍정적인 사고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또한 三從之道의 덕목으로 남편을 변함없이 섬기겠다는 다짐은 시대상은 바뀌었지만 지켜야할 윤리의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자기다짐도 또렷하다.

第 9 段 :

어머니로서 시집간 딸에게 당부하는 말이 세세하고 절절하다.<sup>63)</sup> 유순함과 공손한 자세, 식성에 맞는 음식준비, 반듯한 성품, 아내로서의 자세, 이웃간의 관계, 제사음식 준비, 시부모 봉양, 부모에 대한 효성, 자식교육 등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나열하고 있다. 전 단계까지는 시집살이의 고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자신보다는 시집간 딸의 순탄한 삶, 곧 시부모, 집안 식구, 남편, 이웃 간의 화목한 紐帶關係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第 10 段 :

못된 여성의 행실을 예로 들어 내 딸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구체적이고 세세하다. 문틈으로 엿보기, 이간질하기, 이웃 홍보기, 행주치마 불태우기, 그릇 깨치기, 늦잠자기, 물건 잃어버리는 일, 비위생적인 일, 가난한 사람 홍보기, 시부모와 남편에 대드는 행태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해서는 안 될 것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못보겠고’의 반복을 통한 의미강조가 빼어나고, 그 당시 대학교육을 받은 신여성의 言行不一致를 꼬집고 있다.

第 11 段 :

시집온 지 십년 만에 衣食住 걱정 없는 집안을 도모한 것에 스스로 감격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누에 치고 목화 따고, 온갖 짐승 길러 고기와 알을 얻고, 낮에는 나무하고 밤에는 샅바느질로 살림을 보탠다.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땀흘리는 여성의 일상이 사실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衣는 명주와 무명으로 의복걱정 없고, 食은 앞들과 뒷들의 논밭에서 오곡이 넘쳐나 포식하고, 住는 이층 기와집으로 치장하여 마음까지도 넉넉하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서도 지난 날의 고통과 근심을 잊지 않으면서 근검절약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대유법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재봉틀, 이층실, 응접실, 문화주택 등의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본 가사의 지어진 연대가 최근, 곧

---

63) 시집 간 딸에 대한 당부는 宋時烈의 「宋尤庵 戒女書」가 대표적이다. 항목별로 부모 섬기는 도리, 지아비 섬기는 도리, 시부모 섬기는 도리, 형제간에 화목하는 도리, 친척간에 화목하는 도리, 자식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드는 도리, 손님 대접하는 도리 등으로 나누어 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아버지의 당부가 잘 나타나 있다.

근대 이후임을 알 수 있다.

第 12 段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鄉約<sup>64</sup>정신을 실천하고, 교육적으로는 이웃 주민을 계도하겠다는 다짐이다. 의식주와 관혼상제에 억매여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相扶相助하는 美風良俗의 실천에 앞장 서고, 교육을 통한 계몽으로 이웃 주민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患難相恤과 禮俗相交를 몸소 행하는 개화기 진보된 여성의 모습이다.

第 13 段 :

2男 1女를 둔 부모로서의 긍지가 대단하다. 아들은 대학과 유학,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딸은 현모양처로서의 품위를 갖추니 자랑스럽기만 하다. 특히 출가할 딸에 대한 訓戒가 각별하다.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성과 섬김, 개화기 유행처럼 변진 女尊男卑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부인연의 각별함을 강조하고 夫唱婦隨하는 현명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不貞한 행위는 死別보다도 더 서러운 生離別을 가져온다며 배필로서의 인연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第 14 段 :

출가한 여성의 不正한 행동을 나열하여 딸에게 他山之石으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계획성 없는 살림살이로 식은 밥과 상한 고기를 버리고, 밤참과 주전부리로 시부모의 사랑을 스스로 저버린다. 곳을 통한 푸닥거리로 家産을 탕진하고 山祭와 佛供으로 하루해가 모자란다. 한 여성의 가정에서의 잘못된 처신, 그리고 迷信의 盲信을 질타하고 있다. 한 여성의 正道를 벗어난 왜곡된 처신을 열거적 수법을 사용하여 꾸짖고 있다.

第 15 段 :

---

64) 향약(鄉約) : 조선조 勸善懲惡을 취지로 한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네 가지 綱目이 중심이다.

眼下無人格인 여성을 예로 들어 딸에게 행동거지의 귀감으로 삼을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sup>65)</sup> 배운 여성의 오만함이 나열되고 있다. 집안에서는 화장과 학교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는 산보와 극장가기, 그리고 시장거리를 활보하며 음식타령이나 하는 처신을 비판한다. 시부모는 모르면서 남편과 자식에 대한 偏愛를 지적한 것은 대가족에서 소가족화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게으른 여성의 생활 모습이 매우 구체적이다. 위생은 강조하면서 방의 요강, 장판, 마루는 손본 지 오래고, 부엌의 유기그릇, 사기그릇은 녹슬고 때가 끼여 버려진 세간사리 같다. 그러면서 외제를 찾는 모습을 측은하게 묘사하고 있다.

#### 第 16 段 :

여성교육의 중요성과 여성의 자세, 그리고 賢母良妻로서의 처신을 당부한다.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이 영광스럽게 되고 집안이 화목하게 된다. 배운 사람의 겸손한 자세로 과마머리, 핸드백, 금시계, 보석반지, 붉은 입술 등 외모에 치중하고 경박하게 행동하는 신여성을 질타하고 있다. 외화내빈의 행동을 질타하고 있다. 또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난 사랑을 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화기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남녀평등을 비판한 것은 변하는 것이 두려운 보수적 계층의 정신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 第 17 段 :

시집 간 딸의 처신에 따라 남편과 친정 부모의 위치가 달라짐을 말한다.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자세가 뚜렷하다. 연쇄법을 사용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과 친정부모, 그리고 시집에도 악영향을 끼침을 경고하고 있다. 일년 후 다시 만날 때 시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남편과 화목한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작품 말미에 지은 연대, 그리고 창작자와 기록자가 다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또한 나이 들어 쓴 글이기에 誤字나 脫字가 있을까를 걱정하는 겸손함도 들어 있다.

---

65) 작가와 연대가 未詳인 조선 후기 가사 ‘庸婦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둔하고 못한 여성이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온갖 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을 諷刺的이고 諧謔的으로 노래한 면에서 같다.

그리고 歌辭의 形式(3.4조, 4.4조)을 지키려는 士大夫의 格式화된 音數律을 보이면서도 終句의 3.5.4.3의 음수율의 破格으로 4.4.4.4조로 발전한 것은 가사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形式

본 치산가는 全 243行 472節 943句가 되는 內房歌辭다. 한 여성이 겪는 시집살이의 체험과, 같은 여성의 길을 걷는 딸에 대한 당부와 소망을 담고 있다. 가사는 3.4調내지 4.4調를 그 詩想에 따라 제한없이 연속하다가, 結詞形式에서 작가의 身分에 따라, 형식의 破格을 이루기도 하고 正格을 고수하기도 한다. 兩班歌辭는 시조의 종장형식과 일치하는 3.5.4.3으로 끝맺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4.4.4調로 끝맺는 바<sup>66)</sup> 治産歌는 그러한 終句形式을 벗어나는 4.4.4.4調의 破格性을 드러내 後期歌辭가 雜歌내지 近代 自由詩로 변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반을 통해서 발생하고 발달하여온 가사가 18세기 영.정조에 이르러 평민·부녀층으로 넘어 가면서 기존의 정형에 변형을 가져왔다. 4音步格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행이 2音步格으로 축소되고, 기본 律調인 3.4조가 4.4.조로 변화를 보인 바 이것은 다분히 평민·부녀자 계층에 널리 불리어진 민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歌辭의 구성형식을 보면 單行式, 二行式, 三行式, 四行式, 五行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治産歌는 243行的 單行式을 취하고 있다.

그 字數律을 分析해 보면 5字句(2.3調)가 2個, 6字句(3.3調, 4.2調)가 7個, 7字句(3.4調, 4.3調)가 121個, 8字句(4.4調, 3.5調, 2.6調)가 335個, 9字句(4.5調)가 4個, 10字句(6.4調)가 1個, 11字句(7.4調)가 2個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면 8字句(4.4調)가 330個로 중심 음수율을 이루고 7字句(3.4調, 4.4調)가 121個로 7字句와 8字句가 전체 음수율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破格을 이룬 음수율은 21個에 지나지 않아 정격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음수율으로써 治産歌의 형식을 살펴볼 때 거의 主.副音數律인 4.4調와 3.4調로 구성되어 있어 양반가사나 내방가사의 기본 틀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6) 徐元燮: 「歌辭의 概念考」, 月巖 朴晟義 博士 還曆紀念論叢. 1977, P.179.

## IV. 맺음말

조선 후기 가사는 自我覺醒에 의한 平民精神과 散文精神의 영향으로, 가사 작품이 담고 있던 종래의 觀念的, 敘情的 내용이 敘事的, 具體的인 것으로 바뀌었다. 吟風弄月의 江湖閒靜이나 戀君之情에서 벗어나 구체적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인간의 성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가사 작품의 산문화가 이루어졌는데 ‘治産歌’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선 후기 가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 여성 및 평민 작가층의 성장, 주제와 표현 양식의 다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治産歌’의 내용 전개는 한 여성의 시집살이의 고단한 삶과, 세월이 흐른 후 같은 길을 걷는 딸에게 당부하는 형식을 담고 있다. 序詞 부분은 시집가는 정경과 친정 부모의 심경을 그렸으며, 本詞는 당사자의 심정과 順命意識→빈한한 살림살이→시집살이의 고단함→고통 극복의지→베짜기와 샅바느질→小作農의 悲哀와 倫理意識→친정 부모로서의 당부→부정한 여성 나열→근검절약과 공동체적 삶→부모로서의 긍지와 자랑→부정한 여성과 오만한 여성 비판→女性教育의 重要性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結詞는 부모된 입장에서 소망으로 되어 있다.

以上에서 論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내방가사가 作家未詳인데 비하여 작가와 創作年代가 분명한 個人 創作物이다. 임진왜란 이후 분출되기 시작한 평민 및 여성의 의식이 표현된 대표적 장르가 내방가사다. 그러나 작가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治産歌’는 1945년을 전후하여 안명주의 시어머니 李官峇이 지은 작품으로 작가가 밝혀진 몇 안 되는 작품 중의 하나다.

둘째, 지은이가 忠淸北道 丹陽郡 永春面에서 태어나 忠州로 출가했으며, 기록자 또한 出生地가 全羅道이지만 出嫁 後 생활 전반을 忠州에서 보내며 시어머니의 읍조림을 기록했기 때문에 嶺·湖南의 내방가사가 아닌 忠州地方에서 發掘된 최초의 가사로 내방가사의 分布 地域을 擴張시켰다. 지금까지 내방가사는 嶺·湖南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연구되어 왔다.

셋째, 純 한글 筆寫本으로 表記年代가 1956년인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발굴된 내방가사 중 가장 후대의 것으로 推定된다. 結辭 부분의 기록자가 표현한 ‘文章家가 지은 曲이니 허술히 말고 遺傳해 보라’라는 말을 볼 때 대대로 이어지는 엄격한 家風임을 알 수 있다.

넷째, 故事成語나 漢文투의 문자를 사용하여 客觀的 敘事的으로 표현, 작가의 教育程度와 感情의 節制를 보여주고 있다. 士大夫家 여성의 품위와 지적

인 면모가 나타나 있다. 규격화된 형식 속에서 표현된 날카로운 파격, 그리고 순수한 우리말과 조화된 품격 높은 한자어가 은유와 대구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다섯째, 짜임새 있는 구조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古風스런 姿態를 보여주고 있다. 풍부한 語彙力과 古今을 넘나드는 博學多識과 叡智로 하여 자녀들의 家庭教育書로 쓰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체로 閨房歌詞의 내용은 시집살이의 고달픔과 늙음의 한탄, 임에 대한 怨望과 기구한 運命에 대한 自虐과 自愧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治産歌는 일에 대한 自負心과 矜持가 전편에 위엄있게 나타나 있다.

여섯째, 諷刺的이고 警世的인 어조를 띠고 있다. 특히 不正하고 게으른 여성, 迷信에 빠져 혼미한 삶을 사는 여성을 비판하고 있다.

일곱째, 戲畫化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迂廻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빼뜯어진 여성을 통한 가정의 破綻, 사치함 등 과도기 사회의 혼란을 질타하고 있다.

여덟째, 個人意識, 女性意識의 성장을 통한 女權의 대두와 女性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홉째, 自然과 人生을 조화시켜 日帝의 고난을 餘裕와 恨으로 극복하는 民謠의 기능인 노동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兩班家의 궁핍함과, 권위와 위엄이 상실되는 시대적 격변기에서 고난을 추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 참고문헌

- 權寧徹, 『閨房歌辭研究』, 螢雪出版社, 1974.
-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大洋出版社, 1956.
- 金俊榮, 『韓國古詩歌研究』, 螢雪出版社, 1990.
- 金俊榮·崔三龍 編, 『古典文學集成』, 螢雪出版社, 1992.
- 金杜鉉 外 2人, 『韓國民俗學概說』, 學研社, 1983.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91.
- 李在秀, 『內房歌辭研究』, 螢雪出版社, 1976.
- 任東權, 『韓國民俗文化論』, 集文堂, 1989.
- 任東權, 『韓國婦謠研究』, 集文堂, 1982.
- 鄭玉子, 『朝鮮後期 文學思想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9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 趙潤濟, 『朝鮮詩歌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6.
- 崔在錫, 『韓國人的 社會的 性格』, 開文社, 1993.
- 한국고전문학연구회 編著, 『近代文學의 形成過程』, 文學과 知性社, 1983.
- 韓相福編,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8.
- 黃湏江 外 3人,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92.





보고 지니는 법을 미처 알지 못함도 인망에서 못다 하게  
버림을 조스라니 초를 가외인 되었스니 금주 리고 형을 벗스니  
어디가 선인 정하리니 신미 띠니 너 신비로 프가 프다 서  
공다 하며 제던가 본 리스 주은 맛 조와 같 식 하 며 프를 어  
진 스가 진은 마 프에 마 제 잘 거 하 리 이 바 진 프 프 사 받  
눈에 차서 공다 하 리 프 프 알 때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가 한 되 드 되 되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마을 이 프 자 가 지 가 본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이 될은 일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신 사 리 일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거 어 차 제 어 가 자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구를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너 어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러 노스 코우유 유원지 더 이상 내 손에 담게 스며 버티지 못함  
동성선과 한 주이긴 밤은 스승이든 그대든 이 글은 친대 벗이든 반  
팔이 이 밤이면 얼굴 자르다 다 서서 가지 잘로 삼고 노하고  
보상 감상 서론은 온 자의 안치 모습 노키와 과된 판의  
하 노스 리와 동년 새라 은과 은은 상 제 못 하는 일과 하 주  
며 전 달에 더 농사 한 다 뒤 은 온 마스 취세 뿌려 서 여 중은  
과 들은 들은 내 삼사 일한 기 취에 호미 자르든 들에  
니 손가락이 굳게 갖고 손은 들은 달은 들은 지어 지는 온 유와  
문양에 논가 은 더 드려 서니 숨이 막여 가는 은은  
은은 너의 가나 려고 가 은은 찬바 광의 아 치보 부러  
저 엷가 지 벗은 은은 은은 나 크니 고귀인 은은  
덜은 소야 사 더 사기 신 유가 천 마 더 은은 은은  
그러 하나 스승 스승 하여 노적가 쿠 차고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시미 어 키 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위너면 오곡밭과 곡기름 너너너 그 아니 장할 소나  
그런데 저런 너너너 이오신 이라 남편의 게 조실함  
이 화초 동방 처사 밤이 나 있을 뿐인 드문 다른 품 소  
나아가 아가 달은 의아가 시길 사리 조실하며 라며  
여자의 이즈음 힘 실은 이가 스한 말이 제일이 라 집 안 식  
구 단 스스온 마스 취미 사오 온 구 스온 하라 식 생으로 마스  
위서 이 드 시 7 번 전은 자 온 스 여 라 성은 습 니 면 이 스 스 온  
고 정정 하면 항복 하라 비 스 하 구 용 여 온 한 말 온 스  
리 부 리 드 지 말은 구 용 여 온 스 구 스 한 말 부 리  
하지 말은 <sup>말은</sup> 구 스 스 가 스 온 스 정 힘 드 온 부 리 부 리 하지 말은  
라 아 히 가 현 천 하 면 나 면 광 취 전 온 스 나 구 집 안  
니 항복 하 면 가 도 가 흥 성 하 다 비 스 하 나 두 기 지 심  
하지 말은 구 스 온 너 목 가 지 뒤 전 하 라 앞 온 것 구 뒤 온 것  
고 조실 하며 말 하 라 신 이 온 드 기 치며 하며 말 이 온  
고 신 성 하며 체 신 배 전 온 전 스 하고 경히 말 나 비 방 안

에 들러<sup>가</sup>도 사랑이 스는 것 가스쳐 조심하랴 문밖 거  
여스모기 앞바닥의 집 전과 같 하기의 잇자간의 부근 맛침  
세잔 한잔 힘은 실은이라 네 몸은 온네가 살려내며 부  
뒤우서게 마라 제 사은식 차이로 전가의 더러움 가조심  
하라 너의 자식<sup>가</sup> 녀<sup>가</sup>스니 시부 문계 영은도 하라 마모의  
것 사랑이 보은<sup>은</sup>에 죄인이라 부모게 보은은요 함이  
천하에 제일이라 제가 나운아도 들이느니 온 사랑은  
종이지 하라 여진 여성 본은 온바 다아모 설공을 조심  
하라 더함까지 마친 몸이 못<sup>한</sup> 것이 모<sup>다</sup> 여<sup>가</sup>서 모<sup>다</sup>  
힘은 온<sup>은</sup>면<sup>면</sup> 망<sup>망</sup> 창<sup>창</sup> 하고 의<sup>의</sup> 하<sup>하</sup>다 무<sup>무</sup>는<sup>는</sup> 온<sup>은</sup>으로  
였<sup>였</sup>보<sup>보</sup>는<sup>는</sup> 아<sup>아</sup>니<sup>니</sup> 비<sup>비</sup>구<sup>구</sup> 하<sup>하</sup>여<sup>여</sup> 못<sup>못</sup>보<sup>보</sup>것<sup>것</sup>고<sup>고</sup> 이<sup>이</sup>온<sup>온</sup>가<sup>가</sup>간<sup>간</sup>의<sup>의</sup>가<sup>가</sup>느<sup>느</sup>  
기<sup>기</sup>화<sup>화</sup>가<sup>가</sup>나<sup>나</sup>서<sup>서</sup> 못<sup>못</sup>보<sup>보</sup>것<sup>것</sup>고<sup>고</sup> 이<sup>이</sup>온<sup>온</sup>사<sup>사</sup>화<sup>화</sup>는<sup>는</sup> 온<sup>은</sup>보<sup>보</sup>는<sup>는</sup> 온<sup>은</sup>게  
온<sup>온</sup>가<sup>가</sup>나<sup>나</sup>서<sup>서</sup> 못<sup>못</sup>보<sup>보</sup>것<sup>것</sup>고<sup>고</sup> 힘<sup>힘</sup>주<sup>주</sup>치<sup>치</sup>마<sup>마</sup>부<sup>부</sup>는<sup>는</sup> 온<sup>은</sup>이<sup>이</sup>온<sup>은</sup>가<sup>가</sup>느<sup>느</sup>  
마<sup>마</sup>저<sup>저</sup> 못<sup>못</sup>보<sup>보</sup>것<sup>것</sup>고<sup>고</sup> 사<sup>사</sup>바<sup>바</sup>는<sup>는</sup> 더<sup>더</sup>전<sup>전</sup>배<sup>배</sup>치<sup>치</sup>은<sup>은</sup> 방<sup>방</sup>데<sup>데</sup> 온<sup>온</sup>가<sup>가</sup>나<sup>나</sup>서<sup>서</sup> 못<sup>못</sup>  
보<sup>보</sup>것<sup>것</sup>고<sup>고</sup> 사<sup>사</sup>바<sup>바</sup>는<sup>는</sup> 온<sup>은</sup>가<sup>가</sup>나<sup>나</sup>서<sup>서</sup> 못<sup>못</sup>보<sup>보</sup>것<sup>것</sup>고<sup>고</sup>











노견방지개차지말고본색반지쫓켜만은생싱어  
시차지말고과라신니쫓켜만은머스조너모수너지말고  
며하말신니쫓켜만은나모이우게신지말고며차  
가네편지않너본제련시하지말고동창성이쫓켜  
노북지련시차지말고나모여는왕쫓켜만은나모  
의무면저말고생싱기잔게하지말고어린자싱귀  
업면만거사랑은한여말고나모편니사랑하  
이알게하지말고진정하고진정하라세상인심  
작시면너싱가가스름소야자사다자근모스  
나모편시본색가거진다나모편신본과가  
정부본방신한나아가어른의아가삼중근  
일치말고찰거지아방법치마라어미말은  
여주야일시잇지마라명연본음노라오  
려오마네가다시오는나큰의시부모게  
과금스름화라하게산다하면노근어미  
마오이야

어이아니 조은은 소악아가... 달근 외아가 너무 성근 위  
하지마 큰그아 무조은우 시 지는 사 리 조 심 하 여 잘은 사 라 리

정오가 여니 지 위 큰 여 모 가 너 의 스 구 사 인 지  
서 여 년 영 능 이 시 인 오 세 노 의 큰 비 전 무 비 비 회 이 니

보나 진. 능은 니 살은 피 라 피 근 정, 오 은 조 스 지 무 스  
하 나 여 자 이 후 후 인 니 인 무 범 단 달 은 느 스 하 여 기  
기 근 능 하 노 라